

이준석 “합당 내달 초 무리없이 완료”

안철수 대표 총리 배제 맞지 않아 문·윤 회동 여러 조치 합의했으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4월 초쯤에 무리 없이 합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합당 과정에서) 큰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통해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 대해 “평정히 유해시키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며 “과거에는 당명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다소 조급한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안 대표가 전향적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안 대표의 ‘총리 입각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며 평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여러 번 교류했지만, 안 대표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어서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측 일부 핵심 인사들이 안 위원장에 대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리는데 대해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맞는 것도 있고 당선인 의중을 모르고 하는 말도 있고 사견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늦게 만나는 것만 만큼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입장을 제대로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라운지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강추 캠프’ 개소식…세 과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6일 광주 서구 S컨벤션센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른바 ‘강추캠프’로 명명한 선거사무소는 ‘강한 추진력, 강기정을 추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개소식에는 우원식·이원호·이개호·김승남·신정훈·김원익·김희재·서동용·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섭·양향자·김경만·양정숙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전직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하는 등 3선 국회의원들과 현 정부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낸 인맥과 세를 과시했다.



정 전 총리는 축전을 통해 “강기정은 언제나 자신의 낙내임을 ‘광주 강기정’이라고 쓸 정도로 광주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며 “국회의원 시절 지역 예산 확보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확보했고, 청와대 정부수석 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준비를 끝마쳤다”며 “당당하고 빠른 추진력으로 지역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고 광주신경제지대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정현 전 의원, 전남지사 출마하나…막판 고심 중

“호남발전 놓고 민주 후보와 경쟁” 출마면 전국적 이슈 부상 가능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이정현(사진) 전 국회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면서 “정국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고민 배경에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주장해온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소외됐던 ‘호남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의 시대 과제는 경제를 넘어 국민통합



이다”면서 “국민통합은 호남문제 해결없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입문에서부터 정치 생활 내내 호남 소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보수 정당에서 호남의 정서와 호남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보수 정권에서 어떤 부분을 그동안 간과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볼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대선 패배로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상당 부분 실망하고 계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광주·전남 발전에 대한 돌파구,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호남을 집권해온 민주당에 대해 탈(脫) 정당, 탈 네거티브로 민주당 후보와 한번 겨뤄보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호남 발전 방안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경쟁해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 전 의원이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에 뜻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텃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전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정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진박(진박근혜)계’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 전 의원과 ‘진문(진문재인)계’인 현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대결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원우 나주시장 출마선언 “모두 잘 사는 나주 만들것”

박원우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나주 빛가람동에서 나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새로운 나주, 준비됐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 및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에너지산업과 관광으로 시인 모두가 잘 사는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승진심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은 ▲세계에너지박람회 나주유치 준비 ▲나주 원도심 혼합현실(MR) 기반 첨단관광사업 추진 ▲영산강 국제수상대회 개최 ▲지석전·나주호 관광자원화 ▲시립의료원 설치 ▲100원 택시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에너지혁신창업타운 조성 ▲농민 지원정책 강화 ▲장애인 경제자립 지원 등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 완도군수 예비후보 등록

완도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은 27일 “어르신과 수산인, 농민, 학부모, 장애인 등 완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관광 1번지 완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전국 최고 요양병원 설립, 전복 가격 안정, 해조류 가공 산업 활성화,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어린이 놀이시설 및 아동병원 확충, 공공도서관 설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다. 지 예비후보는 완도 청산 출신으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서기관,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등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재 전남도의원, 광양시장 예비후보 등록

광양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용재 전남도 의원은 27일 “수소 중심 경제도시 육성과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능력 향상 등을 통해 광양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동광양과 광양읍으로 분산된 도시를 결집하고 문화와 예술, 산업도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10·11대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20



대 대통령선거에선 민주당 광양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세 걸집에 앞장섰다. 도의원으로 지내는 동안 ‘LF’아울렛 유치 사업 해결, ‘도립미술관 유치’, ‘창의예술고 유치’, ‘유양중과 마로초 설립 과정’ 등 광양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썼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석열 본부장 비리 의혹’

민주 강경파,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으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박홍근, 원내대변인단 인선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동관에서 원내대표단 대변인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수진·오영환 의원, 박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텔라블루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림 조성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성 가능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도시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객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홀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